

내일이 아닌 1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승현 1989년 (32세) | 남 | 재직중

✉ tmdgus508@naver.com

📠 010-4140-1263

☎ 010-4140-1263

🏠 (06123)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4길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신입	회사내규에 따름	서울전체 정규직	-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08.03 ~ 2016.02	졸업	강원대학교(춘천) (강원)	컴퓨터과학과	3.4 / 4.5
2005.03 ~ 2008.02	졸업	잠실고등학교	이과계열	-

경력 신입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PHP 데이터를 받아와서 DB에 저장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Adobe Photoshop 규격에 맞게 이미지 크기를 잘라내고, 색을 반전시키거나 보정하는 등의 새 이미지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웹 페이지 시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jQuery jQuer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각종 이벤트를 메서드 체인 형식으로 동적 화면 구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vaScript 탭 베이직, 아코디언, 슬라이드 화면 구현, 모달 팝업, 네비게이션 항목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jQuery문법과 혼합하여 동적 기능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CSS3

표현영역에서 css를 제대로 구현하여 반응형 페이지를 수월히 만들 수 있습니다. 콘텐츠 페이지의 각종 스타일링, 폼 요소 작성, 텍스트 스타일링, 박스 스타일링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HTML5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태그들의 기능과 속성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웹표준에 기반으로 다양한 시맨틱 태그를 사용하여 의미론적으로 마크업을 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대학생 시절,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했던 PPT와 포토샵을 통해 컴퓨터 그래픽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공모전 등에 참가하고, 수상도 하게 되면서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웹디자이너로 약 3년간 근무를 하며 툴은 손에 익어갔지만, 소핑몰에서 하는 디자인은 제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복적인 작업에 매너리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량 개발을 목표로 타 분야를 알아보던 중, '프론트엔드'라는 분야를 알게 되어, 취성패 기관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되었고,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해 웹사이트 제작의 전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란, 사용자에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보이는 모든 것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진 제작물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 웹 개발자로서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화면을 만드는 개발자가 아닌, 수많은 사용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남겨줄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장과정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대학생 시절의 저는 영어동아리를 들어갔었고, 전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분야를 알아보다가 컴퓨터과학과로 전공을 변경하였습니다. 졸업 후,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저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코딩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들이 늘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걸어온 과정이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디딤돌이 되었고, 더욱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을 통해 웹 개발을 위한 코딩을 공부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수강에 임하고자 하는 마음에 반장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 공부할 때 배웠던 것들과 웹디자인 업무에서 배웠던 경험들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격 장점 및 단점

저는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우선 계획부터 짜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 장소를 정하고 장소에 따른 일정과 교통편, 그리고 그에 맞는 경비를 항상 제가 맡아서 계획을 짜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 도맡아서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걱정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를 믿고 따라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계획적이고 꼼꼼한 성격은 코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단점은 무슨 일을 보더라도 한번 시작을 봤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있어 고집이 세다는 것입니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근무를 한 덕에 자연스레 생기는 버릇이지만 회사를 근무하게 되면 신용과 노력과 열의를 다하는 저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큰 실수를 내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입사후포부

웹 개발을 시작하고 느낀 점은 정말 배울 게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댄 수준이라 언제 다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지만, 새로운 걸 공부해서 그것을 적용해가는 즐거움이 남아있다는 것이 기대되곤 합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은 제 개인 블로그에 정리해서 업로드 하고 있고, 학원수업 외에도 따로 스터디를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인터넷강의를 토대로 리액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으며, nodejs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의 개발자이지만, 언젠가 새로운 기술을 공부하는 걸 넘어 그 기술의 주류이거나 심지어는 해당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 페이지

랜딩페이지 : lshpf.dothome.co.kr

ZARA(모바일전용) : lsh58.github.io/ZARA

BML : tmdgus508.dothome.co.kr

한국관광공사 : lsh58.github.io/project_G

블로그 : lsh58.github.io